국내 제작 첫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발사 성공

세계 7번째 기상위성 보유

개발 착수 9년 7개월만에

7년간 해양·기상 서비스

국내 연구개발에 의해 제작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이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천리안 위성은 27일 오전 6시 41분(현지시각 26일 오후 6시 41분) 가이아나우주센터에서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Arianespace)사의 아리안-5ECA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쏘아올려졌다.

2003년 9월 개발에 착수된 지 9년 7개월만이다.

발사 후 189.2초가 지나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됐으며 천리안 위성은 발사 24분 38초 후 지구와 가깝게는 251.1㎞, 멀게는 3만5857.2㎞의 타원궤도인 천이궤도에 진입했다.

위성은 발사 32분 38초 후 2천5.3㎞ 고도에서 발사체로부터 분리됐으며 이때부터 위성에 탑재된 컴퓨터의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위성 초기화가 이뤄졌다.

이후 발사 38분만인 오전 7시 19분 호주 동가라(Dongara) 지상국과의 첫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교신 결과 위성의 전력상태와 내·외부 장비의 온도, 탑재체들의 상태, 위성의 자세 등도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은 발사 후 3시간이 지나 태양을 향해 태양전지판의 일부를 펼치고, 발사 36시간 뒤까지는 위성이 지구를 포착하는 작업이 수행된다.

이어 발사 37시간과 62시간, 101시간 후 세차례에 걸쳐 위성은 자체 엔진을 분사해 천이궤도에서 표류궤도로 상승하며 발사 후 6일이 되면 태양전지판이 완전히 펼쳐지게 된다.

발사 후 7일이 지나면 위성이 최종적으로 임무 자세를 잡고 통신 탑재체 안테나가 펼쳐지며 발사 후 2주 가량이 되면 표류궤도에서 고도를 높여 목표했던 동경 128.2도 상공 정지궤도에 자리잡게 된다.

위성은 이후 각종 테스트와 보정작업을 거쳐 올해 연말부터 정상적인 통신, 해양,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천리안 위성은 통신·해양·기상 3가지 기능을 동시에 탑재한 정지궤도 복합위성으로서 향후 7년간 하루 24시간 내내 위성통신 서비스와 한반도 주변의 기상과 해양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산기술로 개발된 통신탑재체가 천리안 위성에 탑재돼 우주인증을 마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번째 통신위성 자체개발국으로서 차세대 위성방송통신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정지궤도 해양관측위성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과 수산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해 해양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영토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독자 기상위성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외국의 기상위성으로부터의 정보에 의존해 30분 간격으로 제공되던 기상예보 수준이 통상의 경우 15분 간격, 위험기상의 경우 최소 8분 간격 수준으로 향상돼 국민생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내 연구개발에 의해 제작된 첫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을 탑재한 아리안-5ECA 발사체가 27일 오전 6시 41분(현지시각 26일 오후 6시 41분) 남미 프랑스령 가이아나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맥 총동원·국회의원 할당제·맞춤형 사업계획…

한푼이라도 더…국비확보 전쟁

광주·전남 단체장·당선자들 정부 예산 따내기 총력전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예산 확보전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달 말 중앙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재선·3선에 성공한 단체장들은 물론 새로운 당선자들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당적과 인맥을 동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7일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재선·3선 당선자들은 틈나는 대로 각 중앙부처를 방문해 예산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선에 성공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수시로 서울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관련 부처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박 지사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2명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28일에는 국토해양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지식경제부 1·2차관 등을 만나 F1자동차경주대회와 2012여수엑스포 등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한다. 또 29일에는 부처별 국비반영사업을 점검, 미진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박 지사는 특히 지역구 의원들에게 해당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전담시키는 '국회의원 할당제'까지 제시하며 국비 확보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은 인수인계와 예산확보 활동이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회의와 각종 간담회, 취임준비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도 광주시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강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2박3일간 서울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 주요부처 장관을 만나고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예산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취임을 하루 앞둔 오는 30일에도 서울로 올라가 국비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막바지 국고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과 전남도 시장·군수들도 국비 확보액을 늘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새로 대형 사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맞춤형 사업계획안'을 마련, 해당 부처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달 중순께 국토해양부로 직원을 파견, 문화동 시화마을 조성사업설명회를 열어 국비 15억 지원을 약속받았다.

최영호 남구청장 당선자는 최근 2차례에 걸쳐 서울을 방문해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국비지원을 호소했으며, 자체적으로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산확보 비상대책팀'을 꾸려 예산확보에 나섰다.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자는 영산강 인근지역 침수방지시설 조성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시 건설국장 등을 국토해양부로 보내 사업을 설명하는 등 취임 전부터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北핵위협·천안함…악화된 안보상황 반영

■ 전작권 전환 연기 배경

한국측 요청 연기 기간 늘려

軍, 이양작업 늦추고 재점검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3년7개월여 연기하기로 합의해 그 배경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실무차원의 협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25일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해 10월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연례 SCM과 MCM(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전작권 전환과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또 국내 보수단체를 필두로 제기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주장도 협의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되어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연기 서명운동에 현재까지 983만명이 동참해 100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와 관련, 미측은 실무협의에서 1~2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우리 측은 연기가 가능하다면 최소한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측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가 필요하다는 한국의 요청 등을 반영해 2015년 12월1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군당국은 전환 시기 연기에 따라 그간 진행해온 이양작업을 정밀히 재평가하면서 북한의 핵위협과 천안함 사태로 부각된 비대칭.특수전 위협 대비 방안 등을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 전력 보강과 이를 지원하는 미군의 보완 전력 전개를 비롯한 잠수함(정) 및 특수부대 침투 대비 전력 보강 진척상황 등을 앞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국군의 전작권 전환 작업은 전체적으로 70%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1일로 전환 시기를 늦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을 각 국가가 갖는다. 현재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의제화하는데 합의하고 그 해 11월부터 공동연구를 해왔으며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2012년 4월17일 전작권을 전환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